

이중언어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기조 강연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현황과 과제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 연구 현황과 과제

Hae-Young Kim(Duke University)

I. 들어가는 말: 계승어의 의미와 의의

언어학 연구뿐 아니라 외국어 습득 연구와 외국어 교육 분야의 기본 전제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구별이었다. 그동안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론 언어학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적 문법 인식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응용언어학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상황과 용례가 다양한 비교와 분석의 준거를 이루었다. 반면 외국어 습득과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확고한 모국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그에 더하여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을 전제로 외국어 학습 과정과 결과가 모국어 습득과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일생 동안 모국어 하나를 습득해 그 언어 하나만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배우는 인구보다 일상적으로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사실 세계적으로 더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음(Grosjean 1982)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구별을 중시한 것은 언어 표준화와 동화 정책을 통해 단일언어 사용을 규범화하고 일상화시킨 1세계 국가들에서 언어학 연구와 외국어 연구·교육 활동이 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외국어의 구별이나 모국어의 개념은 실질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국경을 횡단하고 상이한 언어문화권을 왕래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온 탓이다. 이제 이중언어, 다언어 화자는 민족국가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적 전통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국가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민과 이주로 언어발달의 경로가 복잡해진 언어 사용자에게 모국어와 외국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모국어는 출생과 동시에 어렸을 때 배운 언어, 직관적인 문법 지식을 발달시킨 언어, 능통하게 사용하는 언어인 반면, 외국어는 모국어의 확고한 바탕 위에 추가로 배우는 언어, 아무리 잘 해도 문법적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언어, 개인에 따라 구사력의 편차가 심한 언어로 이해되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민디를 예로 들어 보자. 한국 태생인 민디는 3살에 부모와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다. 캐나다에서도 집에서는 한국어만을 사용하다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영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초중등 교육을 받으며 영어를 일상어와 교육매개어로 습득했다. 민디의 한국어 구사력은 정제, 퇴보하여 아주 기본적인 일상대화가 아니면 유창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반면 영어 구사력은 그 나이의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하등 차이가 없다. 민디에게 있어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영어가 외국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유창성, 문법적 정확성, 구사의 범위와 심도 면에서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영어가 한국어보다 관습적인 모국어/외국어 구별에서 모국어의 특성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디와 같은 언어 사용자에게는 외국어와 모국어의 대조보다는 ‘강세어’, ‘능통어’ (dominant language) / ‘약세어’ (weaker language)라는 개념이 더 유효하다.

언어 습득 시기 상으로는 모국어이지만 강세어가 되지 못하는 언어는 대부분 ‘소수어’ (minority language) 이고 ‘계승어’(heritage language)이다. 미국의 학자들은 ‘계승어 화자’의 정의로 ‘주류 사회의 공용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공용어와 더불어 부모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 또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Valdés 2000)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주 역사, 교육, 직업, 지역 사회 등 여러 환경적 변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나 소수민족의 언어는 대체로 그 사용이 가정에 제한되고 공적활동의 참여와 수행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계승어는 주로 이민 2세대나 3세대가 구사하는 언어로서 가정에서 습득되고 사용되며, 사용 대상은 부모, 손위 친척, 친지이고 사용 범위가 면대면 대화에 그친다. 그 결과 계승어 사용자의 어휘력, 문법 지식,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제한적이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어렸을 때 습득한 언어라는 근거 한가지로 계승어를 모국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언어지식과 구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계승어는 제2언어 또는 외국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모국어/외국어의 구별의 유효성이 불분명해지는 계승어 화자의 언어 지식에 관련된 특성과 언어 발달 환경을 고찰하면서 계승어 발전을 촉진하는 연구, 교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계승어 언어 지식의 특성

최근 계승어 화자의 언어지식의 특성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전에 주류 사회 공용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계승어 화자를 ‘조기 이중언어화자’(early bilinguals)로 명명하며 ‘만기 이중언어화자’(late bilinguals)와 변별하면서 이들의 언어지식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속출하고 있다. 10세를 분기점으로 정한 것은 유년기와 아동기전기의 언어능력은 언어 입력 자료의 변동에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허약한 상태이고, 일정 수준의 언어인지적 성숙에 도달하는 아동기 후기에야 언어능력이 확고해진다는 근거에서이다(Montrul 2008). 이에 따라 10세 이전에 주류언어에 노출된 계승어 화자들의 계승어 문법지식은 모국어 문법보다는 외국어 문법의 특성을 노정한다고 보기도 한다(Montrul 2005; 2008). 외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계승어 화자들은 단일 모어 화자들의 문법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만큼의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화석화된 문법적 오류를 범하며(fossilization), 외국어 화자의 문법이 모국어의 영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승어 문법이 주류어 문법의 영향을 보인다(transfer)는 것이다.

계승어 화자들이 불확정적인 언어지식을 드러내는 문법 영역은 대개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해서 아동 모어 학습자가 늦게 배우고, 성인 외국어 학습자가 어렵게 간신히

배우거나 좀체로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다(O'Grady et al. 2011b). 예를 들어 많은 언어에서 자동구문은 표면적으로 하나의 논항(argument)을 갖지만 동사의 유형에 따라 문법적인 속성이 크게 서로 다르다. 한 예로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에서 비능격(unergative)¹⁾ 동사는 완료형을 만들기 위해 'have'를 써야하는 반면 비대격(unaccusative)²⁾ 동사는 'be'를 쓴다. 그 외에도 언어에 따라 그리고 같은 언어 내에서도 두 동사 유형의 구분은 변이가 심하다. 스페인어 실험에서 계승어 화자들은 비능격(unergative), 비대격(unaccusative) 구문의 문법성 판정 실험에서 분명하고 간단한 비능격 구문과 핵심적인 비대격 구문의 경우 비문(ungrammatical sentence)을 올바르게 변별했지만 타동구문에 가까운 비대격의 수동문 같은 비문³⁾은 외국어 학습자들과 비슷하게 변별해 내지 못했다(Montrul 2005). 또한 모어와 외국어 습득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는 관형화 내포문 습득에 있어서도 계승어 화자는 불확정적인 문법지식을 보여준다. 대부분 언어의 관형화 습득과 이해·사용(processing)에서 명사구 접근위계가설(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에 따라 '[____ 영화를 만난] 남자'와 같은 주격의 관형화 보다 '[영화가 ____ 만난] 남자' 같은 목적격의 관형화가 어렵거나 기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Shirai & Ozeki, 2007; Kwon et al., 2006; 연재훈 2012; 조용준 2012), 한국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아동(Cho 1999)과 외국어 또는 계승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학습자(O'Grady et al. 2001; Jeon & Kim 2007) 연구에서도 외핵 내포문 관형화 습득에서 목적격이 주격에 비해 지연됨이 관찰된 바 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초급반을 수강하고 있는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용이한 주격 관형화의 해석은 65%를 맞춘 반면, 목적격 관형화의 해석은 41.3% 밖에 맞추지 못했다(O'Grady et al. 2001).

계승어 언어지식의 불확정성은 특정 문법 현상의 노출과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승어 발전이 중단되었거나 그 문법 현상이 습득되었으나 사용의 감소로 잊혀졌기 때문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습득과정에서 언어입력 자료의 불충분으로 발생하는 불완전 습득(incomplete acquisition) 또는 부분적 습득(partial acquisition)이고 후자의 경우는 습득된 언어 지식의 유지(maintenance) 실패에서 야기되는 마모 또는 퇴보(attrition)이다(Montrul 2005; 2012; O'Grady et al. 2011b, Polinsky 2011). 예를 들어 한국어 계승어 화자가 어순에 상관없이 순전히 격조사의 사용에 의거하여 주어와 목적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관찰되었다(Song et al. 1997). '남자를 여자가 안아 줬'와 같이 목적어가 주어를 선행하는 문장의 이해를 확인하는 실험에서 격조사의 사용에 따라 '여자'를 행동주(agent), '남자'를 피동주(patient)로 해석하는 비율이 모어 화자 아동은 4살이 되면 50% 이상이 되는 반면, 계승어 화자 아동들은 8살이 되어도 50% 이상을 넘지 못했다. 이 결과에서 보이는 계승어 화자 아동들의 불완전한 격조사 이해는 조사 탈락이 빈번하고 목적어-주어-술어(OSV)의 어순이 매우 희귀한 사실이 언어자료 입력

1) 비능격: John walked. *There walked three men (비문). *Mary laughed hoarse (비문).

2) 비대격: John arrived. There appeared three men. The bag fell open.

3) *An accident was happened. (비문)

이 부족한 계승어 습득 환경에 의해 더욱 증폭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O'Grady et al. 2011b).

계승어 화자의 불완전 습득은 한국어 재귀 대명사(자기, 자신, 자기자신)의 결속범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철이 i는. 민수 j가 자기 i/자신 i j /자기자신 j을 그렸다고 말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모어화자는 '자기'는 원거리 선행사, '자기자신'은 근거리 선행사를 분명히 선호하고, '자신'의 경우는 두 선행사를 비슷한 정도로 선택한다. 한국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아동들은 6~8세까지 '자기'의 지칭대상으로 근거리 선행사를 선호하다가 10~12세가 되어서야 근거리 결속 선호가 감소한다. Kim, Monstrul & Yoon(2009)의 실험에서 10세 이전에 주류언어도 배우기 시작한 성인 계승어 화자들은 '자기'의 지칭대상으로 근거리 선행사보다 원거리 선행사를 선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거리 결속 해석률이 높았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근거리 결속 선호도가 모어화자보다 낮고 원거리 결속 해석은 모어화자보다 잦았다. 이와 같이 계승어 화자들의 재귀대명사 결속범위에 대한 이해는 모어화자의 문법만큼 확고하지 않고 불확정성을 보인다.

계승어 화자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부정확한 문법 지식을 보일 경우 그것이 불완전 습득으로 인한 것인지 퇴보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통시적으로 관찰하거나 연령이 다르지만 비슷한 언어 습득 경험을 가진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계승어 화자의 특정 문법지식이 퇴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성인 계승어 화자를 아동 계승어 화자, 성인 모어 화자, 아동 모어 화자 세 집단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부정어의 해석을 연구한 실험을 살펴보자(O'Grady et al. 2011b). '존은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안 먹었다(John didn't eat ice cream or cake).'와 같이 부정어가 선택보조사와 같이 쓰일 경우 영어의 경우는 접합부정(a conjunctive 'neither nor' interpretation), 즉 양쪽 다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접합부정뿐 아니라 둘 중의 하나만을 부정하는 이접부정(a disjunctive 'one or the other' interpretation)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계승어, 모어 화자를 각각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눈 실험에서 성인모어화자, 아동모어화자는 접합부정의 해석을 100%, 이접부정 해석을 33~34% 받아들였다. 3~8살 아동 계승어 화자도 모어 화자들처럼 접합부정을 선호하는 한편 이접부정 해석도 33% 받아 들였다. 반면 성인 계승어 화자는 이와는 달리 접합부정 해석만 받아들이고 이접부정 해석은 전적으로 거부했다. 이 실험 결과는 성인 계승어 화자의 부정어 해석이 아동 시기의 문법에서 퇴보한 것임을 보여 준다. Polinsky (2011)의 계승어 러시아어 연구도 언어지식 퇴보의 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관형절 해석 실험에서 모어화자와 아동 계승어 화자는 주격 관형화 구문과 목적격 관형화 구문을 용이하게 이해한 반면 성인 계승어 화자의 목적격 관형화 구문의 이해는 50%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기에 습득이 된 문법지식이라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보전되지 못하고 마모될 수 있고, 이것은 계승어 화자의 언어지식을 불확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언어입력자료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환경에서 계승어 화자의 문법적 지식은 불완전 습득과 퇴보로 특징지어질 뿐 아니라 재분석(reanalysis)의 속성도 보인다(Polinsky 2010). ‘철이가 아버지가 부자이시다’와 같은 구문에서 예시되듯 한국어의 이중주어는 친족이나 전체/부분의 관계를 가지고 첫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주어의 문법적 관계는 소유격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계승어 화자는 ‘민수가 동생이 똑똑하다’를 민수의 동생이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민수와 동생이 둘 다 똑똑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Polinsky 2010). 이에서 드러나듯 계승어 화자는 문법소가 가리키는 문장요소 사이의 문법적 관계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의 이해와 분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완전한 습득, 습득된 지식의 퇴보, 단순화된 재분석 등으로 계승어 화자들의 문법 지식이 모어 화자보다는 외국어 화자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외국어 화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인 모어화자 언어 지식 퇴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Kopke 2002, Montrul 2005에서 재인용), 언어지식 상실은 어휘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형태, 통사적 문법 지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형태, 통사적 문법요소 중에서도 개념적 또는 담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식적으로 선택, 사용되는 요소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추상적 요소보다 더 상실되기 쉽다(Sorace 2000, Montrul 2005에서 재인용). 일례로 상당히 추상적인 문법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범위(scope of negation)의 경우 계승어 화자들의 문법지식에 마모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제인이 모든 연필을 안 썼다’(Jane didn’t use all the pencils)와 같은 구문의 부정의 범위를 해석할 때 한국어 모어화자는 전체 부정(즉 하나도 쓰지 않았다)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어 모어화자는 부분 부정(즉 일부를 쓰지 않았다)을 선호한다. 아동 계승어 화자와 성인 계승어 화자를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 하는 실험에서 계승어 화자 두 집단 모두 부분 부정 해석을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조금 더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부정 해석을 100% 옳게 받아들였다(O’Grady et al 2011a). 부정어가 수량 형용사/부사에 선행하는 영어와 달리 수량 관형사가 부정어에 선행하는 한국어의 어순은 수량 관형사가 규정해 놓은 데에 따라 부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이해에 편리하다. 일단 부정 범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습득되면 사용의 빈도가 줄더라도 쉽사리 마모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계승어 화자가 유아기부터 계승어를 습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입력언어자료의 감소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특정 문법영역에서는 외국어 학습자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 한편 통용되고 있는 언어구사력 평가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동급의 외국어 학습자에 비해 계승어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과 능력이 앞서고 학습의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Montrul(2005)의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계승어 학습자와 외국어 학습자를 스페인어 구사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상응하는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 사이에 비능격(unergative), 비대격(unaccusative) 구문에 대한 문법지식에 있어 질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계승어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영어권 한국어 계승어 화자의 언어지식에 대한 연구는 관형화, 재귀대명사의 해석, 부정의 범위 등 장거리 결속의 통사적 측면에 치중된 편이다. 모어와 외국어 습득의 이론적 쟁점 (언어 습득의 최적 연령, 추상적 문법지식의 인지적 기반, 언어입력 자료의 역할 등)을 더 효과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특히 화석화되거나 미발달되기 쉬운 계승어 문법의 영역'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계승어 언어지식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계승어 화자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법소들을 단순화,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계승어 언어지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Polinsky & Kagan 2007). 이는 표현의 오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해 과정에서 빈번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승어 화자의 작문에 혼한 격조사의 생략은 담화의 초점(focus)이 아닌 경우 조사를 명기하지 않는 구어 문법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격조사 체계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관형형 동사, 부사절 등 종속절에서의 상대시제의 사용의 오류라든가 인용문, 간접의문문 연결어미의 일반화 등도 계승어 언어지식에서 빈번하고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오류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계승어 화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 언어 사용 영역의 언어지식이다. 맞춤법이나 문장 종결형 등 명백한 오류를 비롯하여 한자어 기반 어휘의 부족, 긴 호흡의 문장과 문단 이해 능력의 취약, 다양한 레지스터·장르 경험 부재 등 여러 수준에서 지식의 공백이 존재한다.

III. 계승어 습득 환경과 계승어 정체성

대학 수업에서 자신의 계승어 지식과 구사력을 끌어 올리려는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데빈이라는 타이완계 미국인 변호사의 사례연구(Wiley 2008)가 계승어 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계승어 교육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본고 초반에서 예로 제시한 바 있는 캐나다 '교포' 학생 민디는 북미에 거주하는 한국어 계승어 화자의 전형적인 프로필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 민디를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의 계승어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계승어 발전을 최적화하는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배경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Polinsky & Kagan(2007)은 우선 계승어 화자 인구의 이주 역사와 정착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계승어 방언과 레지스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의 한국어 계승어 화자에 초점을 맞춰 한인 이민 사회의 언어문화적 환경과 계승어 발달의 사회, 문화, 교육적 조건을 살펴 보도록 하자.

공용어의 지위와 공용어 사용 정책은 계승어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고등 교육과 공공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어가 배타적으로 사용되며 실질적 공용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여타 언어의 관점에서는 언어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 각 지역의 언

어가 이민자의 가정에서 사용되지만 어떤 이민 집단이든 이민 3세대가 되면 계승어는 유실되고 영어화자로 완전히 전환된다(Fishman 1989). 한국어의 경우도 이민1세대는 대다수가 한국어 만을 사용하거나 한국어, 영어를 병용하는 반면(Min, 2000; Shin, 2005), 2세대가 되면 거의 과반수가, 3세대에 이르러서는 절대 다수가 영어 만을 사용한다(센서스 자료, Alba et al., 2002).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가정의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계승어 전수와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설문 조사,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의 방법으로 계승어 사용 양태, 계승어에 대한 태도와 전망 등을 조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계승어 사용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언어 이데올로기를 추론해 내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보면 이민 1세대 대부분은 자녀들의 계승어 교육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공용어 습득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 양면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Shin, 2005), 주류사회에서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공용어 습득을 최우선시하는 동화주의적 언어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어 습득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녀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부모도 더러 있다(Jeon, 2008). 이민 2세대 자녀들은 자녀대로 소수언어문화, 계승어에 대한 주류사회의 부정적 태도나 가치 폄하를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어 사용을 기피할 뿐 아니라 부모의 한국어 사용 요구나 기대에 반발하기도 한다(Park, 2006; 2008). 계승어 발달과 보존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가진 이민 1세대 부모들은 이러한 저항에 굴복해 버리게 되고,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범위와 빈도가 더욱 축소된다. 이렇게 이민 2세대 자녀의 한국어 지식이 일상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초보적인 영어 소통능력 밖에 갖추지 못한 이민 1세대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의미있는 대화 통로를 잃어 버리고 만다(Lee & Kim, 2007).

이민 1세대 부모들의 계승어에 대한 양면적 태도나 동화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영어 사용 압박과 이중언어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계승어의 유지와 발전이 아동의 정서적 발전, 인지능력의 극대화, 학교 성적과 졸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Lee & Shin, 2008: p. 8 참조), 미국의 지배적인 언어이데올로기와 교육 정책은 영어사용과 주류사회와의 통합과 적응에 몰두하여, 성공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 계승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오도된 인식을 전파하며 학부모에게 계승어·문화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1960년대 이후 한동안 인권 운동의 확산과 함께 이민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균형된 언어 발전을 지향하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이 기반을 잡고 확대일로에 들어섰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교육예산 삭감, 정치 문화의 보수화로 인해 이중언어교육은 이제 심하게 위축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계승어를 유지, 발달시킬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더욱이 미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중요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평가절하되어 있을 뿐더러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일부 유럽어에 외국어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등 소수언어 계승어 화자가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이민 2, 3세대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학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Shin, 2005)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다.

청년기 이민 2, 3세대 계승어 화자들 다수가 소수계 미국인으로서는 문화·언어 정체성 정립의 필요에 직면하며 대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계승어 학습의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Shin, 2005; Lee & Kim 2007; Jeon 2008). 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달리 다수 대학들이 외국어를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어 계승어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학 측에 수업 개설을 요구하고 지역사회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계승어 학생들의 적극적 노력과 운동,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한국문화 홍보정책과 기부 덕분에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주립·사립대학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2009년 현재 미국 대학 외국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는 수강인원으로 봤을 때 14위로 자리매김되었고,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등록 학생 수가 37.1%,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19.1% 증가했다(2009년 MLA 보고서). 이들의 대다수가 계승어 학습자이고 한국어를 수강하는 주요 이유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확인,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으로 들고 있다(Lee & Kim, 2007). 이 학습자들은 소실되어 가던 계승어를 되찾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너무 늦게 시작된 학습의 한계를 의식하며 유감스러워 한다(Lee & Kim, 2007). 또한 초/중급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나 동료 학생들에게서 수강 동기에 대해 의혹에 찬 시선을 받기도 하고, 저조한 한국어 능력에 대해 열등감과 수치감을 느끼기도 한다(Jeon, 2010).

대학생이 되어 뒤늦게 계승어를 다시 배우는 학습자는 부당한 이중적 기준에 종속되는 감이 없지 않다. 한때 계승어를 포기하고 영어 습득에 전력하도록 압박했던 주류사회는 이제 계승어 학생에게서 영어뿐 아니라 계승어에도 능통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 계승어 능력을 연계시키는 계승어 학습자 자신도 모어화자처럼 들리는 계승어 구사를 선망한다. 더욱이 본국의 모어화자는 계승어 화자의 제한된 언어 사용을 질시하고, 그 언어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외국인의 지위마저도 부여해 주지 않는다(J. Lee 2013). 그러나 둘 이상의 언어를 다른 영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언어화자에게 각각의 언어에 대해 단일어 사용자와 똑같은 언어 지식과 구사력을 갖고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두 언어를 다 모어화자의 수준으로 구사하는 “신화적 또는 균형 잡힌 이중언어화자”(mythological or balanced bilinguals; Valdés 2001, Wiley 2007에서 재인용)를 지향하는 분리된 이중언어(separate bilingualism)의 규범을 단념하고 유동적인 이중언어(flexible bilingualism)의 실재를 인정해야 한다(Jørgensen, 2005; Creese & Blackridge, 2011). 두 명의 단일언어화자가 한 몸에 병존하는 이중언어화자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할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중언어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IV. 나가는 말: 계승어 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실과 같은 한정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는 외국어 학습자와 달리 계승어 학습자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배경과 언어 경험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온다. 이 학습자들의 계승어 능력을 최대한 고양하고 그들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방식으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계승어 학생들의 언어 경험과 구사력을 일정 수준 파악해야 할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로 본고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어느 외국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급배정은 배치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치시험은 흔히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기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정도를 시험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교과서를 가지고 교실 상황에서 계승어를 배워 본 적이 없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판정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하다(Polinsky & Kagan 2007). 문어 문법 지식, 문어 어휘, 독해 등을 평가하는 배치시험은 구어 구사능력은 높지만 문법적 정확성이나 학교에 관계되는 어휘지식이 떨어지는 계승어 화자를 하향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배치시험에만 근거하여 반배정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는 훨씬 높은 언어구사력을 가진 계승어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를 포함한 5개 계승어 화자 대학생들 226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 시기, 가족으로부터의 계승어 언어 입력과 자발적 사용의 정도, 그리고 자발적 계승 문화 노출여부가 계승어 구사능력 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Polinsky 2005). 저자들은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양식을 계승어 학습자의 반 배치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Polinsky & Kagan(2007)은 계승어 학습자의 반배치 결정을 위해 세가지 평가 방법을 제안했는데 ACTFL 인터뷰와 유사한 구두시험, 짧은 글쓰기, 언어배경에 대한 설문조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학생의 계승어 지식과 구사의 수준을 훨씬 더 다각적이고 풍부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 정보는 반 배치 결정을 더욱 어렵고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파악된 계승어 학습자의 언어 지식은 기존 한국어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는 급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이야말로 계승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인 또는 소그룹 맞춤형 프로그램, 별도의 학급 개설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ba, R., Logan, J., Lutz, A., and Stults, B. (2002). Only English by the third generation? Loss and preservation of the mother tongue among the grandchildren by contemporary immigrants. *Demography*, 39(3), 467-484.
- Creese, Angela and Blackledge, Adrian. (2011). Separate and flexible bilingualism in complementary schools: Multiple language practices in interrelationship. *Journal of Pragmatics*, 43, 1196 - 1208.
- Fishman, Joshua A. (1989). *Language and ethnicity in minority sociolinguistic perspectiv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Grosjean, François. (1982). *Life with two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Jeon, K. Seon and Kim, Hae-Young. (2007).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in head-internal and head-external relativization in L2 Korean. Yasuhiro Shirai (Guest Edito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 253-276.
- Jeon, Mihyon. (2008). Korean heritage language maintenance and language ideology. *Heritage Language Journal*, 6(2).
- Jeon, Mihyon. (2010). Korean language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 Views from within and acro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4(1), 43-55.
- Jørgensen, J. Norman. (2005). Plurilingual conversations among bilingual adolescents. *Journal of Pragmatics*, 37, 391-402.
- Kim, Ji-Hye, Monstrul, Silvina and Yoon, James. (2009). Binding interpretations of anaphors by Korean heritage speakers. *Language Acquisition*, 16, 3-35.
- Kwon, Nayoung, and Polinsky, Maria. (2005). Heritage language retention: a quantitativ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25th meeting of the South Asian Language Analysis (SALA) roundtable, September 16-18, 2005. http://people.iq.harvard.edu/~nkwon/Papers/SALA_slides_Herit.
- Kwon, Nayoung, Polinsky, Maria, and Kluender, Robert. (2006). Subject preference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25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 Lee, Jeongeun. (2013). Language attitudes and identities of Korean bilinguals. Paper presented at Innovation: East Asian Perspectives, a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at UCLA. January 25.
- Lee, Jin Sook. and Kim, Hae-Young. (2007). Heritage language learners' attitudes, motivations and instructional needs: The case of post-secondar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K. Kondo-Brown & J.D. Brown (eds.), *Teach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heritage students: Curriculum, needs, materials, and assessment* (159-185). New York: Lawrence Erlbaum.
- Lee, Jin Sook and Shin, Sarah J. (2008). Korean heritage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tate,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Heritage Language Journal*, 6(2).
- Min, P. G. (2000). Korean Americans' language use. In S. McKay & S. Wong (Eds.), *New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pp. 306-33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Montrul, Silvina. (200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irst language loss in adult early bilinguals: exploring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Second Language Research*, 21(3), 199-249.
- Montrul, Silvina. (2008). *Incomplete acquisition in bilingualism: Re-examining the age factor*. Amsterdam: John Benjamins.
- Montrul, Silvina and Ionin, Tania. (2012). Dominant language transfer in Spanish heritage speakers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in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e articl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6(1), 70-94.
- O'Grady, William, Lee, Miseon and Choo, Miho. (2001).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by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2, 283-294.
- O'Grady, William, Kwak, Hye-Young, Lee, On-Soon and Lee, Miseon. (2011a). An emergentist perspective on heritage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3, 223-245.
- O'Grady, William, Lee, On-Soon, and Lee, Jin-Hwa. (2011b).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he study of heritage language acquisition. *Heritage Language Journal*, 8(3), 23-40.
- Park, Eunjin. (2006). Grandparents, grandchildren, and heritage language. In Kondo-Brown, K. (Ed.).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Focus and East Asian Immigrants* (57-87). Amsterdam, Netherlands: John Benjamins.
- Park, Eunjin.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values in Korean American families: An analysis of the verb suffix -ta. *Heritage Language Journal*, 6(2).
- Polinsky, Maria (2010). Why bother with heritage speakers?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ritage/Community Languages.
- Polinsky, Maria. (2011). Reanalysis in adult heritage language: New evidence in support of attr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3, 305-328.
- Polinsky, Maria and Kagan, Olga. (2007). Heritage languages: in the 'wild' and in the classroom.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1(5), 368-395.
- Shin, Sarah J. (2005). *Developing in two languages: Korean children in America*.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Shirai, Yasuhiro and Ozeki, Hiromi. (2007). Introduction. Yasuhiro Shirai (Guest Edito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 155-167.
- Song, Minsun, O'Grady, William, Cho, Sookeun and Lee, Miseon. (1997).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Korean in community schools. In Y.-H. Kim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Vol.2* (pp. 111-127).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Wiley, Terence G. (2007). Heritage and community languages in the national language debat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1(2), 252-255.
- Wiley, Terence G. (2008). Chinese "dialect" speakers as heritage language learners: A case study. In D. Brinton, O. Kagan & S. Bauckus (Eds.), *Heritage language: A new field emerging*. pp.

91-105. New York: Routledge.

Valdés, Guadalupe. (2001). Heritage language students: Profiles and possibilities. In J. Peyton, D. Ranard, & S. McGinnis (Eds.), *Heritage languages in America: Preserving a national resource*. (pp. 37-78).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and Delta Systems.

연재훈. 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

조용준. 201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관형화 습득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49, 353-386.